# 영남북부 불교 중심 고운사 성보 한자리에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8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고운사 본·말사 성보 231점 선보여**
**환지본처 '아미타불회도' 최초 공개**
**고운사 성보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
**영남 북부 불교문화 살펴보는 자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최근 고운사로 환지본처한 성보 '고운사 아미타불회도'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22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27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발간사에서 "고운사의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적은 흔치 않았다"면서 "이번 특별전으로 고운사의 숨겨진 이야기와 성보가 많은 이들에게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고운사가 보존해온 국가지정문화재급 성보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봉정사와 부석사를 비롯한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로, 고운사에 모셔진 조선전기의 석가불좌상, 1670년에 조성된 명부전의 명부존상, 1695년에 봉안된 극락전 아미타불좌상, 최초로 공개되는 1701년 작 '아미타불회도' 등 보물 11건을 비롯해 고운사 본말사의 성보 97건 231점을 선보인다.

고운사는 조선 왕실의 원당으로,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하고 어첩(御帖)을 봉안하기 위한 건축물인 연수전이 남아있다. 연수전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수전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1744)'과 연수전의 건립과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고운사 소장 기록 자료들이 공개된다.

또한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과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그리고 영남 북부지역의 조선 후기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불교회화인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보물)', '봉화 축서사 괘불(보물)'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각 1개월씩 교체 전시한다.

△1부 '고운사의 역사와 성보'에서는 고운사의 지나온 역사와 간직해온 성보들을 소개한다. 고운사는 사찰을 관통하는 계곡이 여러 가지 전각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681년 의상대사가 사찰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오랜 시간동안 법등을 이어가며 현재의 가람을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고운사의 석조불좌상과 삼층석탑은 사찰의 창건 시기와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1670년 명부전(시왕전) 건립, 1695년 극락전 아미타불좌상, 1701년 아미타불회도 등 17세기에 조성된 성보들은 고운사를 대표하는 성보라고 할 수 있다. 1835년에는 큰 화재로 인해 여러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이를 중수하기 위한 스님들의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현재는 조계종 16교구 본사로 영남 북부지역의 사찰을 이끌고 있다.


2020년 고운사로 환지본처한 고운사 아미타불회도.

△2부 '고운사의 고승'에서는 '광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조선 1692, 안동 광흥사, 경북 유형문화재)' 등과 함께 고운사를 대표하는 고승들을 소개한다. 고운사는 여러 스님들이 주석하며 오랜 시간 법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창건주인 의상대사를 비롯한 스님들의 기록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전시에서는 고운사의 사격이 확립되는 17세기 이후의 스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영 신경 스님은 고운사의 불사를 주관하며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존상을 봉안했으며, 주변 지역 사찰까지 다양한 불사를 주관했다. 함흥 치능 스님은 19세기 고운사를 대표하는 강백이자 문장가로 스님께 배움을 청하는 이가 끊이지 않았다. 수월 영민 스님은 수행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생전에 몸에서 사리가 나온 이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3부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에서는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고려 1199년경, 보물)'과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고려 12세기, 보물)' 등과 함께 이 지역 사찰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업적들을 소개한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북부 지역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불교문화의 정수가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가 잘 남아있는 곳으로 주목된다. 봉정사와 보광사의 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성보이다. 불교 교학의 기반이 되는 경전의 판각과 인출 역시 이 지역에서 크게 성행했다. 국내 최고(最古)의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이 대장전(大藏殿)으로 기능하며 대장경을 봉안했던 사실은 불교 인쇄문화가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꽃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석사의 〈대방광불화엄경〉 경판은 고려시대 여러 경전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광흥사와 봉정사의 〈월인석보〉와 같은 한글 경전들은 창제 초기 한글의 대중화에 이 지역 사찰이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 영남 북부의 불교회화는 다양한 스님들의 활동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18~19세기 사불산화파로 대표되는 퇴운 신겸 스님과 하은 응상 스님의 화업이 돋보인다.

△4부 '연수전, 왕실의 장수를 축원하다'에서는 '기사경회첩(조선 1744,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현재 왕실의 어첩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건립 과정과 운영 현황이 기록된 자료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 연수전에 대해 살펴본다. (02)2011-1960.

## '실존'에서 그려낸 초실존의 세계

**허허당 스님 기획초대전 '겁외경풍'**
**부산 이웰갤러리 9월 3일~10월 21일**
**실존 밖 세계 표현한 초실존화 27점**
**어려운 건강상태서 그려낸 역작들**


허허당, 겁외풍경, 65.1×90.9cm, 2022

'실존'을 넘어선 세계, 겁외의 풍경은 어떤 것일까. 또 다른 선화의 세계를 모색한 전시가 열린다. 지난해 '화엄의 세계' 展으로 선화의 새로운 세계를 선보였던 허허당 스님이 9월 3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10월 21일까지 부산 이웰갤러리 센텀점에서 기획초대전 '허허당-겁외풍경'을 연다. 센텀점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허허당 스님은 스스로 '초실존화'라고 명명한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허허당 스님의 초실존화는 인간의 실존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생명의 세계를 표현하며 생명의 본질에 역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실존의 세계를 넘어 우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자 그 노력의 회화적 표현이다. 허허당 스님은 "나의 작품은 한국화도 추상화도 현대화도 아닌 '초실존화'"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미술시장에는 초실존화의 열풍이 불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상화는 작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현대화는 문명의 냄새가 너무 짙어 '초실존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됐다"고도 말했다.

사유의 길에서 만나는 고요와 떨림, 설렘에 이어 명상의 길로 이끄는 겁외의 풍경은 세상 밖의 세계를 만나게 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허허당 스님이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의 나쁜 건강상태에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들어낸 그림이다.

김경희 이웰갤러리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웰갤러리 센텀점을 개관하며 열었던 개관전 '허허당-화엄의 세계'는 전시장을 찾았던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던 전시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허허당 스님이 어려움 속에서 그려낸 작품들입니다. 완성된 작품들과 마주하면서 벅찬 감동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으며, 긴 시간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아 또 다시 스님의 그림으로 기념전을 가질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고 전시의 취지와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9월 7일과 10월 1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허허당 스님은 포항 비학산 자락의 휴유암(쉬고 노는 집) 주석하며 그림 그리는 일을 수행으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 1974년 해인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선원에서 본격적인 선화 작업을 시작했다. 1984년 '허허당 선회전'(중앙화랑)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 전시 뿐 아니라 2000년 6월 스위스 취리히 전시, 2010년 하와이 전시 등 해외에서도 전시를 한 바 있다. (051)755-4180. 박재완 기자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